

보도시점 2024. 6. 28.(금) 06:00  
6. 28.(금) 석간

배포 2024. 6. 27.(목) 16:0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 여름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대책 마련·시행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동절기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발생 즉시 위기경보 상향 조정 및 방역 강화조치 시행, 포유류(젓소 포함)·원유·야생 조류·야생 포유류 감염 모니터링(예찰·검사) 강화, 전국 가금농장 교육 및 점검 등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현행)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 (개선) 500m 내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 (육계, 우수 산란계 등)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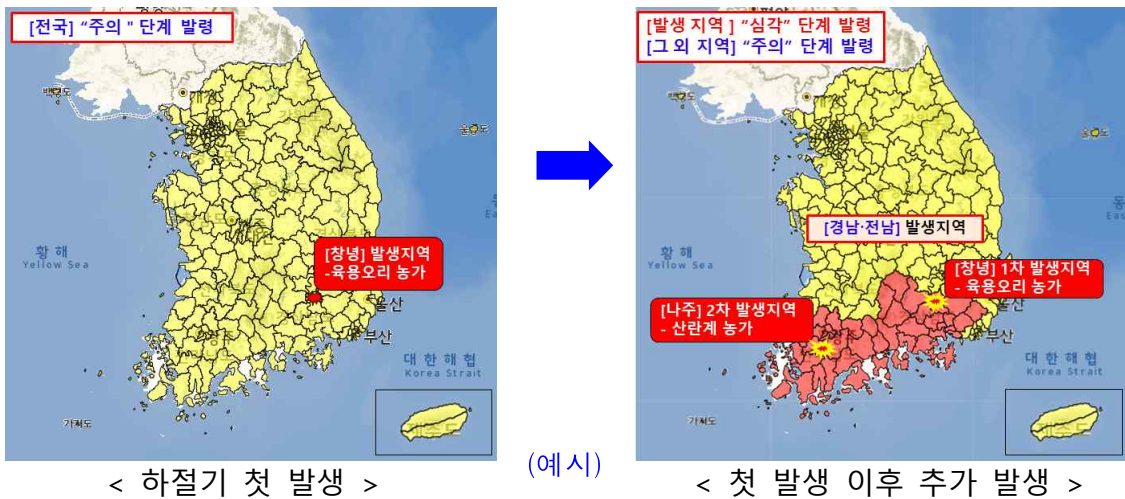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래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방안

담당 부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환경부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임호균 (044-201-7502)



- ① **[선제적 조치]** 하절기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방역관리
- (첫 발생) AI 위기 경보를 전국 '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발생지역(시·도)은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
    - \* 검사주기 단축, 가금농장 점검, 매주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 (추가 발생) 발생지역(시·도)에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SOP 등에 따른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 시행
    - \* '심각' 단계 발령 지역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14일 이상 입식 제한 기간 운영,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행정명령·공고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필요시) 등



- ② **[야생동물]** 하절기에도 야생동물(야생조류 포함) 예찰·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예찰 효율성 제고를 위한 對 국민 폐사체 신고 홍보 강화
- (야생조류) 7~8월 중 야생조류 분변·포획 예찰 확대\*하고, 동절기에는 야생조류 폐사체 중심 예찰\*\* 추진(질병관리원, 방역본부)
    - \* (7~8월) 분변 : 96건<sup>계획</sup> → 150건, 포획 45수<sup>계획</sup> → 70수
  - (야생 포유류) 폐사체 신고 개체를 중심으로 감염 실태 확인 및 야생포유류 감염실태 시범조사(2차) 추진(~'25.3월, 환경부)
    - \* '23.4.~'24.3월까지 야생포유류 22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질병관리원)
  - (교육·홍보) 특방 이전 예찰요원 역량 강화 합동 교육(9월) 및 야생동물(야생조류 포함) 폐사체 신고 강화 홍보 추진(7월~)
    - \* (주요내용) 필요성, 절차, 주의사항 등, (홍보방법) 카드뉴스, 영상 제작 등

- ③ **[모니터링]**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대상 축종 및 물량 확대 추진
- (포유류) 인플루엔자(H5, H7, H9) 모니터링 대상 축종을 5종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물량도 확대(1,200건 → 2,150건, 79.2% ↑)
    - \* (기존) 개, 돼지 → (개선) 기존 + 소, 염소, 고양이 추가
  - (원유) 국내 젓소농장 원유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 확대(4개 도 → 6개 도\*) 및 검사물량 확대(6~9월, 매주 60여건(호) 검사)
    - \* (기존)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확대) 기존 + 경북, 경남
  - (젓소)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시기, 발생농장 및 야생조류 검출 지점 주변 젓소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확대 추진
- ④ **[농장 점검]** 동절기 대비, 전국 가금농장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에 대한 2차 점검 추진(7.8~8.30, 8주간)
- (점검기관) 검역본부, 지자체,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책임자
  - (점검대상) 1차 점검 시 미점검 및 미흡사항 확인 농장, 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열 농장(3,746호),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농장(527호) 등
  - (점검사항)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소독약품 관리 실태, 방역 준수사항 여부 등 점검
- ⑤ **[방역 교육]**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방역 교육 실시
- 가금농장, 계열사, 가금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10개 지역) 및 축종별로 AI 방역 교육 실시(7~9월, 20회)
- ⑥ **[방역 홍보]** 하절기에도 농장의 경각심과 차단방역 수준 유지를 위해 차단방역수칙 홍보 강화(가금단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하절기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심한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경미한 임상증상\*이 있더라도 조기 신고
    - \* 급격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가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1588-9060, 4060)